

2021년 9-2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9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9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혼조세, 테이퍼링 등 주요 리스크 부상

- 미국은 8월에도 각종 경제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연말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와 부채한도 조정 관련 이슈 등이 리스크로 부상
- 일본은 7월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차기 내각 선출과 코로나 확산세 둔화 여부 등이 관심사이고, 유로존 역시 역내 경제지표들의 혼조세가 여전한 모습에도 유럽중앙은행은 채권 매입 속도 완화를 결정
- 중국은 8월 내수 지표들이 현저한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헝다 그룹의 파산 여부와 관련된 이슈가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
- 달러화는 연준의 9월 FOMC 회의 종료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된 반면에, 중국 헝다 그룹의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 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결정 등에도 허리케인 여파에 따른 멕시코 만 생산설비 폐쇄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 지속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승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 감소·투자 증가

- 7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4%)과 서비스업(0.2%)이 전월비 소폭 증가에 그치고, 건설업(-1.9%) 등에서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0.5% 감소
 -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비 0.6% 감소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기계류 등이 동반 증가하면서 3.3% 증가

□ 금 용 : 8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둔화, 9월 중순(9.13~9.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소폭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인해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준의 통화정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연말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전망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과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유지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에서 감소하고, 기계장비 등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7.6% 증가
 - 제조업ICT를 제외하고 중공업에서 한 자릿수 증가, 경공업은 감소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숙박·음식점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4.2%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8.4% 증가, 전월비 기준 3.4% 감소

□ 고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9% 증가

- 지난 8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상당 폭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세(2.0% → 1.9%)

□ 수출입 : 8월 수출 +34.8%, 수입 +44.0%, 무역흑자 16억 달러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4.8% 증가한 532억 달러, 수입은 44.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16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장 품목들(이차전지·SSD·바이오헬스)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1. 해외경제

□ 미국 : 8월 경제지표 혼조 지속, 테이퍼링·부채한도 관련 이슈 부상

○ 지난 8월 생산 둔화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간 혼조 속에 체감지표들의 혼조세도 지속되면서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불투명. 연말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와 부채한도 조정 관련 대립 등이 주요 리스크로 부상

- 산업생산이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과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족난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소매판매가 델타 변이 확산과 자동차·부품 판매 급감(-3.6%) 등의 영향에도 전월과 달리 증가세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 감소에도 신규 수주와 생산이 동반 증가한 데 힘입어 3개월 만에 상승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2021.2월 이후 최저치(91.4)로 떨어지면서 8개월 만에 하락
- 비농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업률이 2020.3월(4.4%)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경기선행지수도 16개월 연속 상승세
- 연말 연준(Fed)의 테이퍼링 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조정과 관련된 의회 내 양당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리스크로 작용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4.5 (-2.3)	6.3 (0.5)	6.6 (12.2)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2.0 (4.6)	1.0 (3.2)	1.5 (2.9)	0.6 (1.1)	0.5 (-0.1)	0.8 (0.0)	0.4 (1.0)
내구재수주	3.5	-13.6	4.7	5.5	3.0	3.2	0.8	-0.1	-
소매판매	3.3	0.3	0.5	8.0	6.5	-1.4	0.9	-1.8	0.7
소비자물가	1.8	1.2	0.6	0.9	2.0	0.6	0.9	0.5	0.3
실업률(%)	3.7	8.1	6.8	6.2	5.9	5.8	5.9	5.4	5.2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196.8	-206.1	-208.4	-68.5	-73.2	-70.0	-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59.1	61.4	60.8	61.2	60.6	59.5	59.9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3.4	96.1	62.3	120.0	128.9	125.1	113.8
경기선행지수 ³⁾	111.6	106.1	109.0	110.6	114.2	114.4	115.1	116.0	117.1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7월 실물지표 혼조세, 차기 내각·코로나 확산세 등이 관심사

- 7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경기선행지수도 하락 전환. 스가 총리의 사임 발표(9.3일)로 차기 내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 둔화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2.8	-1.1	0.5				
광공업생산	-2.7	-10.6	5.7	2.8	1.2	2.9	-6.5	6.5	-1.5
민간기계수주	-0.9	-8.5	12.9	-5.3	4.6	0.6	7.8	-1.5	0.9
소매판매	0.1	-3.5	0.1	0.4	-2.1	-4.6	-0.3	3.1	1.0
소비자물가	0.5	0.0	-0.6	0.5	-0.5	-0.9	0.3	0.3	0.2
실업률(%)	2.4	2.8	3.0	2.8	2.9	2.8	3.0	2.9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1,959	542	439	249	-193	384	441
경기선행지수 ¹⁾	93.9	88.8	96.6	100.2	103.9	104.0	103.1	104.6	104.1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8월 내수 지표 둔화세,恒大 파산 관련 이슈의 영향력 주목

- 지난 8월중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현저히 둔화된 반면에, 수출 증가세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세를 유지. 부동산 개발업체恒大(恒大)의 파산 여부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6.5	18.3	7.9				
산업생산	5.7	2.8	7.1	24.6	9.0	8.8	8.3	6.4	5.3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2.9	30.3	12.6	15.4	12.6	10.3	8.9
소매판매	8.0	-3.9	4.6	34.0	14.1	12.4	12.1	8.5	2.5
소비자물가	2.9	2.5	0.1	0.0	1.1	1.3	1.1	1.0	0.8
수출(달러화기준)	0.5	3.6	16.9	45.6	30.8	28.0	32.2	19.3	25.6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7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ECB 채권 매입 속도 완화 결정

- 7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역내 경기체감지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 유럽중앙은행(ECB)은 채권 매입 속도 완화를 결정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6% → 5.0%로 상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4	-0.3	2.2				
산업생산	-1.3	-8.5	4.3	1.2	0.0	0.7	-1.1	-0.1	1.5
소매판매	2.4	-1.0	-1.2	-1.3	3.5	-3.8	4.1	1.8	-2.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3	1.1	1.8	1.6	2.0	1.9	2.2
무역수지(10억유로)	223.1	234.7	75.5	69.3	38.8	13.3	13.6	12.0	13.4
경기체감지수 ¹⁾	103.7	88.2	91.4	95.3	114.3	110.5	114.5	117.9	119.0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연말 테이퍼링 개시를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반면에, 중국 헝다 그룹의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지속
- 유가는 9월초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결정과 중국 전략비축유 방출 등에 따른 하락 요인에도 불구, 허리케인 여파에 따른 멕시코만 생산설비 폐쇄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 지속(7주 연속) 등의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상승세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24일
엔/달러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0.73
달러/유로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720
미 국채 (10년만기)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22	1.31	1.45
WTI유	48.5	52.2	61.5	59.2	63.6	66.3	73.5	74.0	68.5	74.1
두바이유	50.2	54.3	63.1	62.4	64.5	66.6	73.0	73.3	69.4	74.5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 감소·투자 증가

○ 7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치고, 건설업(-1.9%) 등에서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0.5% 감소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월비 1.6%) 등에서 증가함에도 자동차(-3.9%)와 전자부품(-1.2%)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0.4% 증가에 그치고, 서비스업 생산도 숙박·음식점(-4.8%) 등에서 감소 전환함에 따라 0.2%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2.2	-0.9*	-1.1* (1.1*)	1.9* (1.7*)	6.0* (0.8*)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6.6* (-1.3*)	1.2* (1.2*)	3.7* (3.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6.1* (-0.6*)	12.4* (6.1*)	12.8* (1.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2.9* (3.5*)	-1.8* (1.3*)	-1.2* (-2.3*)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1.5 (1.6)	2.7 (1.7)	7.2* (0.4*)	8.5 (-1.3)	6.9* (-0.2*)	6.5* (1.6*)	4.7* (-0.5*)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0 (2.9)	4.4 (3.4)	12.7* (-1.2*)	12.2 (-1.9)	14.5 (-1.3)	11.5* (2.3*)	7.9* (0.4*)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1 (3.1)	4.4 (3.4)	13.2* (-1.2*)	12.8 (-1.9)	14.8 (-1.7)	11.8* (2.5*)	7.6* (0.0*)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0 (0.9)	2.2 (0.7)	5.8* (1.7*)	8.3 (0.2)	4.2 (-0.4)	5.0* (1.6*)	4.2* (0.2*)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2 (0.9)	6.4 (1.7)	4.4* (2.7*)	8.7 (2.1)	3.1 (-1.8)	1.6* (1.4*)	7.9* (-0.6*)
설비투자지수	-5.7	6.0	2.8 (0.8)	11.9 (6.9)	12.4* (0.5*)	16.4 (3.1)	11.2 (-2.6)	9.9* (-0.5*)	11.7* (3.3*)
건설기성액	-2.3	-4.1	-5.3 (2.5)	-7.2 (-3.6)	-5.3* (-2.4*)	-3.6 (-2.6)	-6.8 (-2.9)	-5.6* (-0.7*)	-8.1* (-1.9*)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3.6	114.4	116.6*	116.3	116.6*	116.8*	117.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8.8	99.4	99.7	101.2*	101.1	101.2*	101.2*	101.3*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2.5	124.7	127.1*	126.3	127.2*	127.9*	128.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1	99.6	100.7	101.6	102.5*	102.2	102.5*	102.8*	102.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1.6%) 판매가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 등 내구재(-2.8%)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2.7%) 판매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월비 0.6%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4.0%)와 운송장비(1.1%)에 대한 투자가 동반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3.3%)한 반면,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2.6%) 공사 실적의 증가에도 토목(-13.4%)에서의 큰 폭 감소로 1.9%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소매판매액 등이 감소함에도 수입액과 서비스업생산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2% 상승(6개월 연속)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수출입물가비율과 재고순환지표 등이 감소함에도 코스피 지수와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함에 따라 0.2% 상승(16개월 연속)

□ 물가 : 8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7.3% 상승

- 8월 소비자물가는 보건(전월비 -0.1%)과 교육(0.0%)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2.4%)와 주택·수도·전기·연료(0.3%), 교통(0.8%), 음식·숙박(0.4%) 등 대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2.6%)
- 8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0.7%)과 공산품(0.4%)에서 전월비 상승폭이 축소되고, 서비스(0.3%)도 전월보다 약간 낮은 상승률에 그치면서 전월비 상승률이 0.4%로 하락(전년동월비 7.3%, 7월 수치 7.4%로 상향)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0.4	0.5	0.4 (0.1)	1.1 (1.2)	2.5 (0.5)	1.5 (0.1)	2.3 (0.2)	2.6 (0.1)	2.4 (-0.1)	2.6 (0.2)	2.6 (0.6)
근원물가	0.9	0.7	0.7 (0.0)	0.9 (0.6)	1.4 (0.6)	1.0 (0.1)	1.4 (0.3)	1.5 (0.3)	1.5 (0.1)	1.7 (0.1)	1.8 (0.3)
생산자물가	0.0	-0.5	-0.2 (0.2)	2.4 (2.6)	6.4 (2.5)	4.1 (1.1)	6.0 (1.0)	6.6 (0.5)	6.6 (0.5)	7.4 (1.0)	7.3* (0.4*)
근원물가	0.1	-0.1	0.5 (0.5)	2.4 (2.0)	6.0 (2.7)	3.8 (0.9)	5.6 (1.2)	6.2 (0.6)	6.4 (0.5)	7.0 (0.9)	7.1* (0.3*)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8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둔화

-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폭이 축소
(21.7월 +11.3조원 → 21.8월 +7.9조원, 대기업 +0.3조원, 중소기업 +7.5조원)
 - 대기업 대출은 전월의 계절요인 소멸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 중소기업 대출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데다, 시설자금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전월비 증가 규모는 축소
- 회사채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 소폭의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7월 +1.5조원 → 21.8월 -0.2조원)
- CP도 전월과 달리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7월 +0.9조원 → 21.8월 -0.2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일부 기업들의 기업공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확대
(21.7월 +1.8조원 → 21.8월 +6.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 은행 원화대출	32.8	3.5	92.0	5.9	65.0	5.1	11.3	7.9	1,041.3
(대 기업)	-2.2	-1.9	26.0	-0.1	3.9	-1.1	2.3	0.3	175.7
(중소기업)	35.0	5.4	66.0	6.1	61.0	6.1	9.1	7.5	865.6
<개인사업자>	16.1	2.7	34.0	2.7	27.1	3.2	4.2	3.4	413.1
■ 회사채 순발행	12.9	0.1	13.3	1.0	14.9	2.8	1.5	-0.2	..
■ CP 순발행	5.7	0.9	7.1	-0.8	8.7	0.1	0.9	-0.2	37.3
■ 주식발행	4.1	0.5	5.0	0.6	23.1	2.4	1.8	6.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8월중 금융시장 동향).

- 8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특히 기타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 역시 전월보다 축소
(21.7월 +9.7조원 → 21.8월 +6.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집단 대출 취급도 이어진 영향으로 인해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7월 +6.0조원 → 21.8월 +5.9조원)
-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상환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21.7월 +3.6조원 → 21.8월 +0.3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	34.5	7.4	59.9	11.7	57.5	6.3	9.7	6.2	1,046.3
■ 주택담보대출	26.7	4.6	42.3	6.1	42.3	5.1	6.0	5.9	764.2
■ 기타대출	7.9	2.8	17.7	5.7	15.2	1.3	3.6	0.3	281.1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8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9월 중순(9.13~9.24일) 금리 & 원/달러 동반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9월 들어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준의 통화정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연말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전망 등으로 상승 (9.13일 1.53% → 9.24일 1.58%, +0.05%p, 2019.6.3일 이후 최고치)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중국 부동산 업체인恒大 그룹의 파산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 (9.13일 1,176.0원 → 9.24일 1,176.5원, +0.5원, 2021.8.20일 이후 최고치)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24일
국고채(3년)	1.07	0.84	0.85	0.98	1.13	1.45	1.42	1.40	1.58
회사채(3년, AA-)	2.08	2.25	2.19	2.21	2.06	1.97	1.85	1.83	2.02
CD(91일)	1.10	0.79	0.63	0.66	0.75	0.68	0.70	0.92	1.02
CP(91일)	2.20	1.51	1.11	1.09	1.00	0.97	0.97	1.12	1.18
원/달러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0.3	1,159.5	1,176.5
원/100엔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48.5	1,057.0	1,071.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7.6%, 전월비 0.0%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34.4%), 화학제품(12.4%), 1차금속(16.9%)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에, 자동차(-3.4%)가 4개월 만에 감소한 데 이어, 기계장비(9.5%) 등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7.6%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2.2%)를 제외하고 중공업(9.5%)에서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지고, 경공업(-0.5%) 역시 5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1.6%)를 비롯해 기계장비(1.0%) 등이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석유정제(0.2%)와 화학제품(0.3%) 등은 크게 변화가 없는 데다, 자동차(-3.9%)와 전자부품(-1.2%)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보합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7)는 금속가공과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자동차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1.0%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3%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3.9%로 전월보다 1.4%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약간 축소(8.4% → 6.4%, 계절 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감소 폭도 축소(-5.0% → -3.0%)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1%로 전월에 이어 0.5%p 추가 상승

□ 서비스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4.2%, 전월비 +0.2%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6.1%), 운수·창고(7.0%), 정보통신(7.1%), 보건및사회복지(5.2%)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숙박·음식점(-7.5%), 전문·과학·기술서비스(-2.0%)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체 기준 4.2%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1.7%)와 정보통신(2.7%), 보건및사회복지(1.5%) 등에서 증가한 반면, 운수·창고(-0.5%)를 비롯해 숙박·음식점(-4.8%), 전문·과학·기술서비스(-5.2%)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8.4%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4%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12.9	109.8	113.7	110.8	116.3	115.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0	4.4	12.7	14.5	11.5	7.9	0.4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12.9	109.1	114.4	111.4	117.2	116.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1	4.4	13.2	14.8	11.8	7.6	0.0
섬 유	135.0	-5.9	-10.5	-6.2	-4.5	25.1	29.4	20.9	12.1	2.6
화 학	883.8	-1.3	-3.0	-1.2	2.8	15.6	18.6	16.2	12.4	0.3
철 강	454.3	-2.2	-6.3	-1.5	-1.9	13.3	14.2	20.9	19.4	2.4
반도체	1,285.6	11.7	22.7	12.6	21.9	27.2	26.8	25.8	34.4	1.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0.8	-3.2	8.7	17.2	8.8	2.7	-5.3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2	28.7	41.7	53.3	21.3	15.4	-6.2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9.8	17.0	31.9	38.7	25.6	20.4	-1.1
기계, 장비	819.2	-5.9	3.6	3.7	9.4	18.4	20.4	17.4	9.5	1.0
자동차	981.6	-0.5	-10.0	-2.9	11.2	22.5	28.2	20.4	-3.4	-3.9
조 선	206.3	17.6	8.6	-1.3	-15.6	-17.6	-16.1	-22.3	-24.4	-2.6
- 중 공 업	-	0.6	0.6	0.6	5.5	14.4	16.2	13.4	9.5	0.1
- 경 공 업	-	-0.6	-4.0	-2.9	-0.3	7.4	8.5	4.8	-0.5	-0.2
- 제조업ICT	-	4.8	11.9	8.5	14.0	19.9	21.6	16.4	22.2	1.7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10.5	105.9	110.9	109.5	113.6	111.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0	2.2	5.8	4.2	5.0	4.2	0.2
도소매	211.3	-0.4	-2.6	-1.8	3.1	5.3	2.9	3.8	6.1	1.7
운수및창고	90.3	0.0	-14.2	-13.1	-2.4	11.0	9.0	9.4	7.0	-0.5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24.6	-13.1	1.5	-2.1	-0.6	-7.5	-4.8
정보통신	79.9	3.6	1.5	0.0	2.0	3.9	2.9	5.9	7.1	2.7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8.7	15.0	9.7	7.5	9.9	7.4	0.4
부동산	31.8	0.5	5.5	0.5	-2.6	5.7	5.5	3.2	-3.5	-3.7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3	2.1	4.2	2.8	3.2	-2.0	-5.2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11.7	-3.8	5.5	5.4	5.7	4.9	0.2
교 육	106.0	-0.4	-4.7	-3.9	0.2	3.0	3.3	1.0	2.6	1.4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4	0.8	3.1	3.1	3.8	5.2	1.5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3	-18.0	20.8	18.0	12.2	2.0	-5.5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0.4	-1.8	0.3	-3.6	-2.4	1.6	-0.2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2.3	0.5	6.1	6.3	5.2	9.5	4.4
- ICT서비스업	-	3.5	4.9	3.4	4.3	4.5	3.6	5.4	8.4	-3.4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8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9% 증가

○ 지난 8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상당 폭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세(2.0% → 1.9%)

-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율은 2020.12월 이후 최저치(0.1% → -1.7%)
-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202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0.7% → 2.4%)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도 증가폭이 확대(2.5% → 2.6%)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폭도 다시 확대(4.6% → 6.1%)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축소(-3.5% → -2.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9.9% → 10.1%)와 교육서비스(1.5% → 2.9%) 등에서 전월보다 확대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3% → 4.1%)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6.5% → 3.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4.9% → 4.8%)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증가세 역시 둔화(4.2% → 3.7%)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8%로 하락(1999.6월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전 산업	27,123	26,904	26,952	26,369	27,467	27,214	27,550	27,637	27,648	27,603
전년동기비	1.1	-0.8	-1.6	-1.4	2.3	2.5	2.3	2.2	2.0	1.9
농림·어업	4.1	3.6	2.4	-0.2	0.2	-0.2	-0.2	1.0	0.7	2.4
제조업	-1.8	-1.2	-2.4	-0.6	0.1	0.2	0.4	-0.2	0.1	-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1.7	2.9	3.1	2.9	2.7	2.5	2.6
건설업	-0.7	-0.2	2.2	1.7	7.0	7.3	6.6	7.0	4.6	6.1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0	-5.3	-7.0	-6.9	-2.4	-2.2	-2.3	-2.7	-3.5	-2.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3	1.8	5.2	5.5	4.4	5.8	6.2	6.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2	-0.4	4.3	4.5	4.6	3.9	4.2	3.7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4.3	4.4	3.7	3.7	3.8	3.7	3.3	2.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8월 수출 34.8% 증가, 수입 44.0% 증가, 무역수지 흑자 16억 달러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4.8% 증가한 532억 달러, 수입은 44.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장 품목들(이차전지·SSD·바이오헬스)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산품 수입이 대폭 증가한 데다,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중간재와 소비재, 자본재 등의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10.5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5.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70.6% 상승하고, 도입물량도 1.8%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은 73.7% 증가한 약 60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19 (4.1)	1,464 (12.5)	1,568 (42.1)	512 (41.2)	507 (45.6)	548 (39.7)	555 (29.7)	532 (34.8)
수입	5,033 (-6.0)	4,676 (-7.1)	1,237 (-1.7)	1,363 (12.2)	1,490 (37.5)	508 (34.0)	478 (38.0)	504 (40.7)	536 (38.1)	516 (44.0)
무역수지	389	452	182	101	78	4	29	44	18	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3개 주력 품목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10개 품목이 20% 이상 증가

○ 반도체 : 신규 CPU 출시에 따른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로 고용량 D램 주문 확대가 이어지는 데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신규 모델 출시와 파운드리 업황의 호조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친환경차·SUV의 수출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요 시장에서 백신 접종률 확대와 방역규제 완화 등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 경기 회복과 신차 구매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 기업들의 전략 차종 판매 호조 및 완성차 공장의 가동률 상승세 등에 힘입어 수출도 2020.11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발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후판 가격 인상으로 선가 역시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8월중 다수의 고부가가치 선종이 통관된 영향 등으로 인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도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는 OLED 시장 확대 및 제품군의 다양화와 OLED를 탑재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국내 기업들의 신규 폴더블폰이 해외에서도 기록적인 사전예약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평균 판매단가(ASP)도 상승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나, 철강재 수출단가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에서 수요 개선세가 이어짐에 따라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동남아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對아세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의류·타이어 등 전방산업들의 호조 등에 힘입어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로 인해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여름철 글로벌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위생용품·포장재 등 비대면 생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합성수지 수출 증가와 의류

용 라텍스·타이어 등 합성고무 수요 등으로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NC선반·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동반 증가함에 따라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고급형 프리미엄 가전 판매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시장에서의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는 OLED TV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전체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소비자용 SSD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상반기 재고 소진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서버 증설 수요 및 계약 단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동차	5.3	-13.1	1.1	31.4	74.8	73.4	93.7	62.4	12.3	16.9
자동차부품	-2.5	-17.3	3.8	5.6	123.1	99.9	182.1	108.0	35.0	22.3
선박류	-5.2	-2.0	32.1	28.3	11.9	14.4	-15.0	41.3	9.3	38.1
일반기계	-1.9	-8.9	-5.1	-1.4	21.2	17.0	25.7	21.3	18.2	23.4
철 강	-8.6	-14.5	-6.5	7.5	50.6	38.9	62.9	51.6	41.5	53.7
석유화학	-14.8	-16.4	-7.7	26.5	80.3	82.3	93.7	66.9	60.2	81.5
석유제품	-12.2	-40.6	-44.7	-16.6	112.6	100.5	169.6	83.6	75.6	54.9
섬 유	-8.0	-13.3	-6.6	-8.3	46.0	46.5	57.1	36.4	17.4	19.0
가 전	-3.8	0.7	19.2	15.8	66.5	69.3	89.3	47.5	29.7	12.3
무선통신기기	-17.6	-6.4	11.9	21.6	38.5	79.7	41.2	3.4	5.0	62.1
컴퓨터	-20.6	57.2	8.5	2.8	8.9	1.6	7.5	16.5	26.4	26.1
반도체	-25.9	5.6	18.7	14.0	29.7	30.2	24.5	34.4	39.6	43.0
디스플레이	-17.0	-12.2	17.8	16.3	36.0	43.5	38.6	28.2	38.0	2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

한국은행(2021.9.16일)

○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현재 5.3억톤(산업부문 기준)으로 추정되며, 특히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8%(2001~18년)의 가파른 증가세
- 제조업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전산업 대비 65.9%)을 차지하나, 최근에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서비스업의 배출 비중도 확대
- 2001~18년중 CO2 배출량 증가분(2.4억톤)의 상당 부분이 최종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 증가에 기인하고, 특히 수출수요의 확대 요인이 크게 작용

□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

- **(물리적 리스크)** 자연재해,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자체가 초래,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전세계 평균 대비 리스크는 낮은 상황
- **(이행 리스크)**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물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발생, 고탄소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리스크가 클 가능성
- **(물가)** 농수산물가격 상승, 단위생산비용 증가(노동생산성 저하), 기업의 탄소배출 세금 부담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발생

〈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별 파급경로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	
		급진적 충격	점진적 충격	탄소배출규제	친환경·신산업
수 요	소비	재산피해 → 부(-)의 자산효과	-	가격 상승, 구매력 저하	-
	투자	자산 감소, 불확실성 확대, 피해복구 투자	-	생산비용 증가	신재생에너지, 신산업기술
	수출	공급망 차질, 경쟁력 약화, 불확실성 확대	-	교역조건 악화	-
공 급	노동 자본	물적자본 파괴 → 자본생산 여력 하락	노동생산성 하락	-	-
	투입 요소	에너지, 식료품 중간투입 공급제약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환경규제, 에너지공급차질	-

□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탄소세 부과)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같은 기간 세계교역 증가율이 연평균 0.1~0.6%p 하락하고, 유가 상승률이 연평균 0.5~2.3%p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
 - 시나리오2의 부정적 효과가 시나리오1보다 4배 정도 큰 것은 지구 평균 온도 목표치를 추가로 하락시키는 데 적잖은 희생이 수반됨을 의미

<표>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 정책 대응의 거시경제 효과

	주요 가정 ¹⁾			거시경제 효과 ²⁾	
	온도 상승	배출허용량	CCUS ³⁾	거시변수	2021~50년 연평균(%p)
시나리오1	1.5~2.0°C	2020년 대비 70% 감축	상용화 미비, 이산화탄소 0.1억톤 제거	GDP 성장률	-0.08
				소비자물가 상승률	0.02
시나리오2	1.5°C 이하	2020년 대비 100% 감축	점차 상용화, 이산화탄소 1.1억톤 제거	GDP 성장률	-0.32
				소비자물가 상승률	0.09

주 1) NGFS(2021) 저탄소경제 이행 시나리오 반영, 2050년 기준.
 2) 기후변화 정책 대응이 없는 균형경제 상태 대비 누적효과.
 3)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정부투자 활용) 탄소세 부과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해당 재원을 정부의 친환경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음.
 - IMF(2020)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탄소세 수입중 GDP 1% 규모를 매년 정부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움.
 - NGFS 시나리오처럼 매년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속해서 정부투자에 활용시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가 상당폭 상쇄될 것으로 추정
 - 기술 발전과 상용화 간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시사점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으로 발생 가능한 이행 리스크에 대응하여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술보완적 재정정책의 운용, 산업별 탄소배출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객관적인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친환경산업 육성 노력,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대응방안 등이 요구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9.27)  7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8월 내구재수주(잠)	(9.28)  9월 소비자신뢰지수  9월 소비자동향조사	(9.29)  8월 무역수지(수)  9월 경제체감지수	(9.30)  8월 산업생산(잠)  8월 소매판매(잠)  8월 실 업 률  2L2분기 실질GDP (확 정 치)  9월 가업장기심사지수  8월 산업활동동향	(10.1)  8월 실 업 률  9월 소비자물가(예)  9월 ISM 제조업지수  8월 개인소비  9월 수출입통계
(10.4)	(10.5)  9월 ISM 비제조업지수  8월 무역수지  9월 소비자물가	(10.6)  8월 소매 판매	(10.7)  8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10.8)  9월 고용보고서
(10.11)	(10.12)  금융동화위원회	(10.13)  9월 수출입통계  8월 기계수주  8월 산업생산  9월 소비자물가  9월 고용동향	(10.14)  9월 소비자물가  8월 산업생산(수)	(10.15)  8월 소매판매(수)  8월 수출입통계  9월 소매 판매
(10.18)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 판매  9월 고정투자  2L3분기 실질GDP  9월 산업 생산	(10.19)	(10.20)  9월 무역수지(잠)  9월 소비자물가(수)	(10.21)  9월 경기선행지수  9월 생산자물가	(10.22)  9월 소비자물가